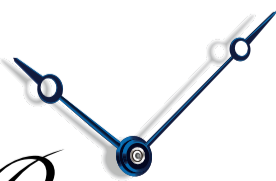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FALL/WINTER
2022




Breguet
Depuis 1775

Art of Breguet

탁월한 워치메이커의 전형으로 워치메이킹 문화유산의 한 부분을 이루는 브레게. 눈부신 역사를 장식한 독창적인 작품은 뛰어난 기술적 성과와 함께 매뉴팩처 장인의 마법과 같은 공예 기술을 통해 탄생했다. 선구안을 지닌 창립자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의 비전을 바탕으로 미학과 기술, 예술과 혁신의 조화를 선보여온 브레게 하우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혁신의 상징, 브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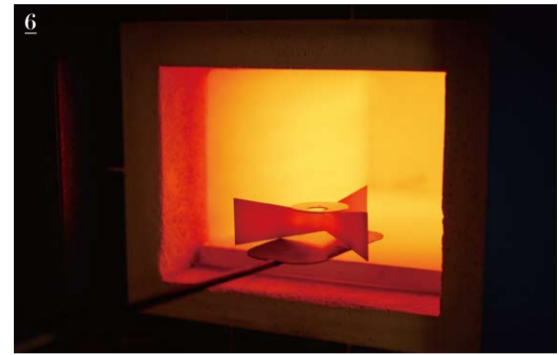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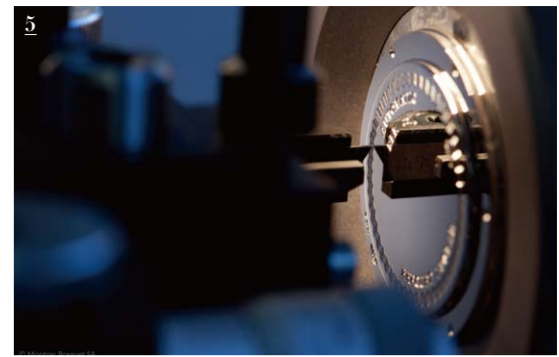
1775년 탄생한 브레게는 창립자 아브라함-루이 브레게(Abraham-Louis Breguet)의 시대를 앞서는 정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시계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뛰어난 워치메이커였던 그는 언제나 혁신을 추구했고, 최초의 손목시계부터 투르비용, 파라슈트, 브레게 '에플' 핸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명품을 내놓았다. 동시에 전위적인 디자이너로서 워치메이킹업계에서 신고전주의 스타일을 이끌며, 세련된 동시에 가독성이 뛰어난 디자인을 통해 브레게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처럼 풍부한 유산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도 워치메이킹의 미

래를 구축해나가는 브레게는 창립자의 정신을 계승해 브랜드 역량의 상당 부분을 연구 개발(R&D) 부서에 투자하고 있고, 이는 실리온 밸런스 스프링, 자성 파봇 발명 같은 큰 성과로 이어졌다. 브레게의 모든 시계는 스위스 쥐라산맥 근처의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에 위치한 매뉴팩처에서 전문 장인의 손길을 거쳐 제작되며, 언제나 이상을 뛰어넘는 탁월함을 선보인다.

기술을 뛰어넘는 예술, 메티에르

하우스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워치메이킹의 미학적 아름다움을 향한 열정을 쏟은 아브라함-루이 브레게는 독보

적인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및 기계를 개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여전히 과장되고 화려한 바로크, 로코코 양식이 유행하던 18세기 후반, 그는 간결한 디자인에 대한 열망을 품고 심플한 아라비아숫자와 오픈 팁 핸즈, 슬림한 케이스, 평평한 에나멜 다이얼을 갖춘 전혀 다른 스타일의 시계를 선보인다. 탁월한 안목을 반영한 시각적 코드는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이는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어서 그는 1786년 워치메이킹에 기묘세 기법을 최초로 접목한다. 본래 시계 케이스의 매끈한 텍스처를 위해 사용한 기술이지만, 적용 범위를 다이얼로 넓혀 장식적 아름다움을 부여했고, 디스플레이의 각 영역을 구분하도록 응용하며 시계의 가독성을 한층 더 높였다. 이처럼 수공예 장식(Metiers d'Art)을 통해 기술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브레게 하우스는 오늘날 인그레이빙, 앙글라주, 에나멜링, 기묘세를 위한 자체적인 워크숍을 갖추고 숙련된 장인을 보유한 소수의 매뉴팩처 중 하나다. 전통에 기반해 점차 진화하는 여러 가지 수공예 기술은 시계에 예술성과 개성을 부여한다. **기묘세(Guilloché)** 하우스의 시그니처인 기묘세를 담당하는 워크숍에는 약 30대에 이르는 최첨단 수준의 엔진-터닝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 장인들은 고객들이 직접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계의 거의 모든 부품(다이얼, 케이스, 로터, 플레이트, 칼리버 바 등)에 패턴을 구현한다. 브레게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이에 특화된 연구 개발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인그레이빙(Engraving)** 매뉴팩처의 인그레이빙 장인들은 브레게에서 수년간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하우스 고유의 예술적 문법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미학적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

니게 된다. 플레이트, 케이스 밴드, 칼리버 바 등에는 주로 엔보싱(소용돌이 혹은 스크롤 모티프) 기법이 적용된다. 이에 반대되는 기법, 다시 말해 모티프를 깎아내는 부조 인그레이빙에서도 하우스의 노하우가 드러난다. 시계 뒤 글자

와 숫자를 인그레이빙하는 것 역시 희소한 기법에 속한다. **앙글라주(Anglage)** 시계 외부에서 쉽게 살펴볼 수 없지만 난도 높은 파나싱으로 잘 알려진 앙글라주는 무브먼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인 동시에 하나의 예술이다. 고도의 노력함을 요구하는 이 기법은 다양한 부품 가장자리의 날카로운 부분을 깎아내 45도 각도의 챔퍼(혹은 베벨)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너비는 일정하고 각도는 완벽한 평행을 이루어야 하며 폴리싱은 균일한 광택을 내야 한다. 일부 공정의 경우 이를 익히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또는 사용 가능한 별도의 기계가 없어, 오로지 해당 장인이 보유한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 앙글라주 워크숍이 아말도 스위스 워치메이킹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셈이다. **에나멜링(Enameling)** 현재 스위스의 극소수 장인만이 마스터한 그랑 피(Grand Feu) 에나멜링은 오랜 세월을 이어 온 기술이다. 실리카와 금속 산화물 등을 혼합한 컬러풀한 가루를 물에 용해시킨 후 샴플레(champlevé), 미니어저 페이팅, 그리자유(grisaille), 플라자주르(plique-à-jour)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소재에 적용한다.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이것을 고온의 가마에서 구워내는 과정에서 발휘된다. 각각의 레이어를 얇고, 깊이 있는 컬러를 더해갈 때마다 오븐에서 굽는데, 정확한 온도와 타이밍은 오직 장인만이 알고 있다. 반복되는 소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균열, 기포도 허락하지 않기에 에나멜 다이얼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몇 주가 소요되기도 한다. **클 아베르(क्락 에베르)**



브레게 고유의 일곱 가지 상징

1 엔진-터닝 다이얼 (Engine-turned Dials)
1786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하우스는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다이얼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한 엔진-터닝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 매뉴팩처 장인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 골드 혹은 마다모브릴 다이얼에 정교한 기묘세 패턴을 수직적으로 새겨 넣는다.

2 브레게 핸즈 (Breguet Hands)
1783년경 시계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아브라함-루이 브레게는 손이 번득번득 달 모양의 문 핸즈를 개척했다. 우아함과 실용성을 겸비한 브레게 핸즈는 그 자체로서 워치메이킹 분야의 대명사가 되었다.

3 플루티드 케이스 밴드 (Breguet Caseband Fluting)
1783년경 시계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아브라함-루이 브레게는 손이 번득번득 달 모양의 문 핸즈를 개척했다. 우아함과 실용성을 겸비한 브레게 핸즈는 그 자체로서 워치메이킹 분야의 대명사가 되었다.

4 비밀 서명 (The Secret Signature)
브레게에서 제작한 시계에는 확인되는 증거로 고안된 비밀 서명은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브레게 다이얼에 새겨져 있다. 주로 숫자 12의 양 측면에 드라이포인트(drypoint) 테크닉으로 각인된다.

5 브레게 숫자 (Breguet Numerals)
18세기 말 아브라함-루이 브레게는 현대에 이르러 브레게 숫자로 불리는 특유의 아라비아숫자 인덱스를 선보이며 워치메이킹의 디자인 코드를 재정의했다. 이는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요소다.

6 고유 번호 (A Single Number)
모든 브레게 시계에는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며, 각 번호는 18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하우스의 아카이브에 기록된다.

7 왈드 라그 (Welded Lugs)
시계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케이스 밴드에 라그를 용접하고 스크류 핀으로 스트랩을 고정한다. 손목의 상쾌한 라인을 고려한 왈드 라그는 최상의 착용감을 선사한다.

Modern Classic

예술성을 바탕으로 한 브레게 고유의 스타일은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에 대한 원칙과 장인 정신, 전통적 가치를 통해 하우스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우아함을 구현한 클래식 컬렉션을 소개한다.

시간을 초월한 품격, 클래식 컬렉션

브레게가 창립된 1775년 파리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바로크 양식이 유행했다. 하지만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 아브라함-루이 브레게는 디자인 혁신을 통해 위치메이킹 분야의 '신 고전주의' 스타일을 창조했고, 시간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고안한 간결한 스타일의 시계와 함께 오픈 팁 핸즈, 기요세 패턴, 오프센터 다이얼 등의 새로운 요소를 발명한다. 특히 오프센터 다이얼은 1812년 하우스가 선보인 포켓 위치에 적용되며 이후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2003년에는 이 타임피스에서 영감을 얻은 최초의 클래식 위치가 등장한다. 오랜 시간 브레게가 지켜온 위치메이킹의 철학과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한 클래식 컬렉션은 엑스트라-씬 위치부터 컴플리케이션 모델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제된 미학을 바탕으로 하는 브레게의 DNA를 담고 있다. 오리지널 모델을 계승하는 골드 케이스, 그랑 피 에나멜링 다이얼과 로즈 엔진 패턴으로 핸드 인그레이빙한 다이얼, 핸드 페인팅한 아라비아숫자 인덱스 등 시계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요소는 위치 컬렉터와 브레게 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클래식 컬렉션은 크게 클래식과 클래식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라인으로 구분해 전개하며, 후자의 경우 2백50년 가까이 이어온 브레게의 탁월한 위치메이킹 노하우

와 진화하는 기술력을 응축해 담은 컬렉션이다. 이를 통해 매뉴팩처가 자랑하는 투르비용, 페페추얼 캘린더, 미닛 리피터, 이퀘이션(군시자), 그랜드 스트라이크 등의 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하이엔드 위치를 경험할 수 있다.

동시대적인 우아함, 클래식 캘린더 7337
클래식 컬렉션의 상징적 타임피스인 클래식 캘린더 7337에 새롭게 추가된 신제품. 시계 전체를 통해 브레게가 보유한 독보적인 장식 기술이 드러난다. 아워 캡터 링 안쪽의 오프센터 다이얼은 기요세 기법으로 클루드 파리 모티브를 표현했고, 그 바깥쪽 다이얼은 보리 낱알 모양의 자수 장식에 착안한 그랭 도르주(Grain d'Orge) 패턴으로 장식했다. 12시 방향에는 사실적 묘사가 돋보이는 문페이즈를 더했는데, 글리터 파우더를 포함한 블루 래커로 처리한 문 디스크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연상시킨다. 수공 해머링 처리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달, 샌드 블라스트 처리해 매트한 질감을 구현한 구름 또한 정교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시, 분, 초는 전통적인 블루 스틸 소재의 오픈 팁 브레게 핸즈로 표시하며, 각각 2시와 10시 방향에 위치한 날짜 및 요일 인디케이터는 커다란 사이즈로 가독성을 높였다. 한편 지름 39mm의 화이트 골드 또는 로즈 골드 케이스 내부에는 무브먼트 칼리

버 502를 장착했다. 이는 2백36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로둠 도금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두께가 2.4mm에 불과하나 개방형 배럴 구조를 갖춘 덕분에 최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또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과 실리콘 혼을 갖춘 인버티드 직선 팰릿 레버의 이스케이프먼트를 장착해 부식, 마모에 강하며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아 타임피스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투명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서도 장식적인 무브먼트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로즈 엔진 위 그랭 도르주 패턴으로 수공 인그레이빙한 화이트 골드 로터, 챔퍼링 기법 또는 코트 드 제네브 모티브로 장식한 여러 부품을 통해 클래식 컬렉션 특유의 우아함을 느낄 수 있다. 새로운 클래식 캘린더 7337의 화이트 골드 모델은 미드나잇 블루 컬러 엘리게이터 스트랩, 로즈 골드 모델은 미스터리 브라운 컬러 엘리게이터 스트랩과 함께 제공한다.



1 2022년 신제품으로 선보이는 클래식 캘린더 7337. 화이트 골드 버전으로 미드나잇 블루 컬러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했다. 2, 3 클래식 캘린더 7337 로즈 골드 버전. 4 투명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칼리버 502. 5 다채로운 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3개의 스트랩을 하나의 박스에 담아 세트로 선보이는 클래식 담담 8068. 6 라즈베리 핑크 컬러의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한 로즈 골드 모델. 7 블루티드 케이스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크라운. 8 칼리버 537/3. 9-11 각기 다른 세 가지 스트랩을 장착한 화이트 골드 모델.

다채로운 매력의 여성 시계, 클래식 담담 8068

2022년 새롭게 해석한 클래식 담담 8068은 언제든지 원하는 스트랩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는 특별한 메카니즘을 통해 매력을 발산한다. 브레게 하우스 최초로 교체 가능한 3개의 스트랩을 하나의 박스에 담아 세트 로 출시하는데, 브랜드 최초로 탑재한 고유 '인스턴트 스위치' 시스템 덕분에 별도의 도구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스트랩을 교체하며,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 즐길 수 있다. 착용자는 리그와 스트랩이 맞닿는 부분에 위치한 푸셔를 누른 뒤 스트랩을 위로 들어 올려 이를 분리하고, 새로운 스트랩을 장착할 때는 끝에 있는 슬롯을 리그와 같은 높이에서 45~60도



를 이루도록 배치한 다음 이를 살짝 눌러 고정하기만 하면 된다. 공통된 블랙 세팅 스트랩을 기본으로, 화이트 골드 모델은 티 블루 및 비잔티움 퍼플 컬러의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로즈 골드 모델은 피콕 블루 및 라즈베리 핑크 컬러의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다이얼과 케이스 또한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스타일로 단장했다. 챔퍼링 위 로마숫자 인덱스 대신 브레게 뉴머럴로 불리는 특징적인 아라비아숫자 인덱스를 프린트해 신선한 인상을 풍긴다. 클루드 파리 패턴 핸드 기요세로 장식한 머디오브펠 다이얼을 장착하고, 12시 방향에는 타원형으로 브레게 로고 및 고유 넘버를 배치해 기념 넘친다. 베젤과 리그를 포함한 케이스 전체에는 총 6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손목 위에서 화려한 광채를 발산한다. 크라운 위 블루 사파이어를 세팅한 초기 모델과 달리 신제품에는 카보숑 컷 다이아몬드를 장식했다. 지름 30mm, 두께 7.7mm의 새로운 클래식담담 8068은 총 1백91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칼리버

537/3으로 구동하며,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 및 인-라인 스위스 레버 이스케이프먼트를 갖춰 오차 없이 정교하게 시간을 알린다. 시간당 2만5천 회 진동하며 30m 생활 방수 및 45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투명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로즈 엔진 위 그랭 도르주 패턴으로 수공 인그레이빙한 플래티넘 로터와 챔퍼링 및 코트 드 제네브 패턴으로 마감 처리한 무브먼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술적으로 발현된 시간

브레게는 여러 컬렉션을 통해 전통적인 그랑 피 에나멜 다이얼을 장식한 타임피스를 선보여 왔다. 그랑 피 에나멜은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소수의 장인이 수작업을 통해 구현하는 가장 오래되고 난도 높은 메타에 다르 중 하나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지녔다. 분말 형태를 한 다채로운 색상의 에나멜을 붓을 사용해 골드 플레이트 위로 얇고 균일하게 덧칠하는데, 새로운 레이어를 얹

을 때마다 800°C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내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되는 소성 공정을 통해 완성된 에나멜 다이얼은 특유의 평채와 함께 영원히 변치 않는 선명한 색상을 띠게 된다. 워치메이킹 세계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클래식 컬렉션 에나멜 위치를 소개한다. **클래식 그랑 피 블루 에나멜 5177** 브레게의 현재 컬렉션 중 최초로 블루 에나멜 다이얼을 접목한 모델. 하우스를 상징하는 다크 블루(브레게 블루) 색상의 에나멜 다이얼을 통

해 클래식 컬렉션 고유의 정제된 미학을 극대화했다. 하우스 매뉴팩처는 이와 같은 특별한 컬러를 구현하기 위해 안료 개발부터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영롱한 다이얼 위로 은색 분말을 분사하는 매우 섬세한 작업을 통해 약간 도톰한 부조 형태로 새겨 넣은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 눈금을 대신하는 별과 다이아몬드 형태, 백합 문양(fleur-de-lis)이 돋보인다. 문 팁 핸즈 또한 파란 배경 위에서 잘 보이도록 스틸 소재에 수작업으로 로듐 코팅 처리했다. 다이얼 3시 방향에는 동일한 블루 & 실버 스타일의 날짜창을 배치하고, 6시 방향에는 고유의 시크릿 시그너처를 에나멜링으로 장식했다. 이는 1787년 출시한 브레게 No.15 셀프 와인딩 위치에서도 볼 수 있는 요소로, 브레게 컬렉션 가운데 에나멜 다이얼을 장착한 모델은 모두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사용했던 캘리그래피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실리콘 소재의 레버와 밸런스 스프링, 이스케이프 휠을 갖춰 뛰어난 항자성을 자랑하는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칼리버 777Q로 구동하며, 엔진 터닝 장식의 골드 로터가 특징으로 보이지 않는 각 부품에도 켈퍼링, 서클러 그레이닝, 브러싱, 코트 드 제네바 등의 기법을 사용해 섬세하게 마무리했다. 정교한 홈이 파인(fluted) 매끈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의 지름은 38mm, 두께는 8.8mm로 화이트 골드 핀 버클을 장착한 미드나잇 블루 컬러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했다. 각 시계 뒷면에는 고유 번호를 인그레이빙해 더욱 특별하다.

클래식 문페이즈 7787 플루티드 케이스 밴드를 갖춘 지름 39mm의 로즈 골드 케이스에 화이트 컬러의 그랑 피 에나멜 다이얼을 장착했다. 아라비아숫자 인덱스는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의 첫 번째 손목시계와 탁상시계에 사용한 대표적인 '브레게 뉴머럴' 스타일로 우수한 시인성과 우아함을 갖췄다. 12시 방향에 문페이즈 창이 위치하며, 6시 방향에 세팅한 긴 바늘로 가리키는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는 뛰어난 가독성이 특징이다. 파워 리저브를 표시하는 눈금은 양 증맞은 화살표로 표현했는데, 이는 1785년 발표한 포켓 워치 No.92의 디자인을 차용한 것이다. 2개의 배럴로 가능을 향상시킨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591DR1로 구동하며, 실리콘 이스케이프먼트와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해 충격 완화에 우수한 동시에 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께는 3.01mm에 불과하다. **클 아에에** (역원 에디터)

1 영롱한 그랑피 에나멜 다이얼이 멋스러운 클래식 문페이즈 7787. 2 브레게 최초로 블루 에나멜 다이얼을 접목한 클래식 그랑 피 블루 에나멜 5177.



1 브레게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제품 중 하나인 서브스크립션 위치에서 영감 받아 트래디션 컬렉션이 탄생했다. 2 진화한 서브스크립션 칼리버를 장착한 탱크 위치.

A Tradition of Innovation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현대성을 아우르며 2005년 론칭한 트래디션 컬렉션. 다이얼을 통해 무브먼트의 견고한 구조를 드러낸 이 특별한 타임피스는 하우스의 역사에 기록된 전설적인 서브스크립션 위치와 탱크 위치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다. 우아함에 갖든 전위적인 면모를 통해 시간의 순수성과 복잡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간결한 미학의 정수, 서브스크립션 칼리버

아브라함-루이 브레게는 생전에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를 선보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워치메이킹 역사상 가장 심플한 시계를 제작한 인물이기도 하다. 프랑스혁명이 발생한 직후 스위스에서 2년간 어려운 시간을 보낸 그는 1795년 봄 파리로 돌아와 시테섬(Île de La Cité)의 퀘드올로지(Quai de l'Horloge)에 위치했던 회사를 재건한다. 이후 공방의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던 중 넘치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서브스크립션 위치를 고안하게 된다. 브레게 하우스가 2005년 출시한 트래디션 컬렉션의 기원인 서브스크립션 위치는 하나의 핸드로 시간과 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싱글 핸드 포켓 위치로, 당대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미니멀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갖췄다. 브레게는 1797년 출간한 브로슈어를 통해 시계 이름이 서브스크립션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계 가격은 600리브르입니다. 시계를 주문할 때 총 금액의 25%를 선지불해야 합니다. 제작은 지연되지 않을 것이며, 구독 주문 방식을 통해 순서대로 배송이 이루어 집니다." 이처럼 혁신적 마케팅 전략과 신선한 디스플레이로 이방가르드하다는 평가를 받은 서브스크립션 위치는 아브라

함-루이 브레게가 그의 제작 의도 및 동기, 기술적 사양을 직접 문서화한 유일한 제품이기도 했다. 그가 매종의 새로운 시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시에 대중의 취향에 어떻게 부합할지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서브스크립션 위치의 출시와 더불어 브레게는 또 다른 요소를 도입하는데, 이는 바로 규모 큰 모조품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비밀 서명이었다. "대중이 제가 관여하지 않은 작품에 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방하기 매우 어려운 고유의 마크를 다이얼에 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드라이포인트 팬터그래프라는 기계가 사용되었으며, 브레게 뮤지엄은 최근 이와 관련한 사례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처럼 독보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섬세하게 설계된 서브스크립션 위치는 당시 7백여 피스 이상 판매되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또 한 번의 진화, 탱크 위치

더욱 진화한 형태의 서브스크립션 칼리버는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1년 후 프랑스 산업 전시회에서 선보인 최초의 탱크 위치를 고안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당시에는 조명 시설이 좋지 않아 어두운 곳에서 다이얼의 시간을 읽기 어려웠으며, 사고 모인에서 직접적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품위에

어긋나는 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창립자 브레게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지 않고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했다. '요령, 재치를 뜻하는 단어 탱크로 이름 붙인 새로운 포켓 위치는 케이스 외부에 돌출된 아워 마커를 갖췄는데, 덕분에 사용자는 이를 손으로 만져 노출된 핸즈와 그 위치를 비교해가며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하우스 고유의 디자인을 반영해 엔진 터닝 기요세, 그레이 및 블루 컬러 에나멜링, 골드와 펄 또는 다이아몬드 스테르 등으로 장식한 다양한 버전의 탱크 위치를 소개했다. 새롭고 편리한 시간 확인 방식은 물론 다이얼을 통해 무브먼트의 부품을 감상할 수 있는 놀라운 디스플레이를 통해 브레게의 미학은 더욱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와 같은 헤리티지는 오늘날의 트래디션 컬렉션으로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다. 2005년, 하우스의 아가 이브에서 영감을 가져온 니콜라스 G. 하이에크(Nicolas G. Hayek) 회장과 디자인 팀은 탱크 위치의 특별한 레이아웃에 감명받아 선구자의 디자인을 재현한 트래디션 컬렉션을 선보였다. 론칭 후 현재까지 강력한 독창성 및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하며 핸드 와인딩 및 셀프 와인딩 모델을 비롯해 듀얼 타임, 레프트그레이트 세컨즈, 퓨제를 장착한 투르비용 등의 컴플리케이션 위치로 보다 풍성한 컬렉션을 이루고 있다.



1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트래디션 퀴템 레트로그레이드 7597, 2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의 데이트 인디케이터, 3 케이스 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505Q, 4 트래디션 퓨제 투르비용 7047, 5 인하우스 수동 칼리버 569.



2022년 주요 신제품

브레게의 기원으로 회귀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트래디션 컬렉션. 2세기 동안 이어진 승고한 장인 정신의 규격에 따라 작은 디테일조차 놓치지 않은 다이얼은 시간이라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단순 명료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 안에 깃든 철학을 능숙하게 표현한다. 올해의 신제품 또한 시간 너머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계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트래디션 퀴템 레트로그레이드 7597** 2020년 첫 출시에 이어 비주얼 변화를 가미해 새롭게 소개하는 트래디션 퀴템 레트로그레이드 7597. 하우스의 역사적인 포켓 워치(서브스크립션, 액트 위치)의 대담한 설계 및 혁신적 기술력을 계승하는 모델로, 전작과 다른 화이트 골드 소재의 지름 40mm 케이스에 모노크롬 블루 컬러 다이얼, 무연탄 코팅 처리한 진화색 무브먼트를 더했다. 다이얼 3시에서 9시 방향에 걸쳐 180도로 넓게 자리한 데이트 인디케이터가 특징으로, 입체적인 핸즈가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으로 작동하며 날짜를 가리킨다. 데이트 인디케이터 역시 신제품의 디자인 코드에 부합하는 블루 컬러로 코팅했고, 그 위에 실버 톤 파우더로 전자 처리한 아라비아숫자 인덱스와 골드 카보숑을 교차 배치했다. 날짜는 케이스 10시 방향에 위치한 푸셔를 통해 손쉽게 조정 가능하다. 오리지널 모델과 같이 3개의 스크루로 고정된 12시 방향의 블루 오프센터 골드 다이얼에는 기요세로 섬세한 엔진 터닝 클루드 파리 패턴을 표현했고, 전통적인 로마 숫자 인덱스 및 오픈 탑 핸즈를 더했다. 실리콘 혼을 장착한 인버티드 레버 이스케이프먼트, 실리콘 소재의 브레게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한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505Q로 구동해 부식과 마모에 강하며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정밀한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총 2백69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무브먼트는 시간당 2만1천 회 진동하며 5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한다.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정교한 움직임에 감상할 수



3

있는 것은 물론, 1780년에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제작한 퍼페추얼 위치의 부품을 연상시키는 골드 로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골드 핀 바늘을 장착한 미드나잇 블루 컬러 엘리베이터 스트랩과 함께 선보인다. **트래디션 퓨제 투르비용 7047** 창립자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의 가장 큰 유산 중 하나인 투르비용의 발명을 기리는 모델. 18세기 남성들이 재킷이나 베스트 등에 소지하고 다니던 포켓 위치는 수직 상태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한 오차를 극복하고자 아브라함-루이 브레게는 1801년 최초의 투르비용을 고안해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며 또 한번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다. 새로운 투르비용 7047 모델에 장착한 퓨제 체인 투르비용의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은 와인딩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토크(torque, 회전력)를 보장해 시계의 규칙적인 작동을 가능케 하는 특성을 지닌다. 배럴이 완전히 와인딩되면 최대한의 동력이 발휘되는데 체인은 퓨제 상단, 즉 가장 작은 돌레를 따라 움직인다. 체인이 풀리면서 토크는 감소하지만 퓨제의 가

장 넓은 부분인 베이스와 나란히 움직이며 전달되는 동력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브랜드의 상징적 코드를 녹여낸 현대적인 디자인의 새로운 투르비용 7047은 기요세로 클루드 파리 패턴을 표현한 오프센터 골드 다이얼, 전통적인 로마 숫자 인덱스, 사과 형태의 핸즈를 통해 하우스의 유산을 재현했다. 브레게는 시각적으로 통일된 느낌을 주기 위해 부품 전체에 다양한 처리 기법을 사용했는데, 티타늄 소재의 투르비용 케이스와 다이얼은 블루 코팅을, 체인 링크는 푸른빛의 열 처리 과정을 거쳤다. 지름 41mm, 두께 16mm의 플래티넘 케이스 중삼에서 힘차게 박동하는 인하우스 수동 칼리버 569는 총 5백42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으로 배치한 레버 이스케이프먼트, 실리콘 러그 및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해 자기장의 영향에서 자유롭고 부식과 마모에 강하다. 시간당 1만8천8백 회 진동하며 5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플래티넘 소재의 트림블레이드 폴딩 버클을 장착한 미드나잇 블루 컬러 엘리베이터 스트랩과 함께 제공한다.



1 (왼쪽부터) 트래디션 담요 7038 로즈 골드 모델과 트래디션 레트로그레이드 세컨즈 핸드 7097 로즈 골드 모델, 2 트래디션 인디펜던트 크로노그래프 7077, 3 트래디션 담요 7038 화이트 골드 모델.



2

남녀 모두를 위한 베스트 컬렉션

우아한 디자인에 장착된 정교한 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통과 아방가르드의 조화를 보여주는 트래디션 컬렉션은 진정한 오토 오를로제리의 아이콘이다. 2005년 처음 소개된 이후 점차적으로 라인업에 특별한 모델을 추가한 데 이어, 2017년에는 로즈 골드 버전의 트래디션 담요를 처음 출시하며 여성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뛰어난 기계식 시계를 선보이는 데 성공했다. 커플 워치로도 완벽한 선택이 될 브레게 트래디션 컬렉션의 주요 모델을 소개한다. **트래디션 담요 7038** 오직 여성만을 위해 탄생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 다이얼을 통해 무브먼트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디스플레이와 그래픽적인 구조가 돋보인다. 지름 37mm의 로즈 골드 또는 화이트 골드 케이스로 전개하며, 12시 방향에 위치한 시와 분을 표시하는 오프셋 다이얼은 엔진 터닝 클루드 파리 홈네일 패턴을 새긴 머더오브펠로 장식했다. 그 위로는 브레게 서명과 개별 번호, 아라비아숫자 인덱스, 골드 소재의 브레게 오픈 탑 핸즈가 자리한다. 다이얼 중심부에서는 로제트 모터브로 핸드 인그레이빙한 배럴이 시선을 끌며, 4시 방향의 밸런스 휠을 비롯해 이스케이프먼트를 탑재한 브리지에서는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의 발명품인 파라슈트(밸런스 관련 부분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발견할 수 있다. 10시 방향에서는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으로 초를 보여준다. 베젤에 총 6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약 0.895캐럿)를 세팅했고, 크라운에는 무브먼트에 사용한 핑크빛 주얼을 세팅해 재미난 매력을 드러냈다. 배럴과 동일한 꽃잎 모터브로 우아하게 장식한 케이스 백의 골드 로터에서도 하우스의 정인 정신이 느껴진다. 브레게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505SR로 구동하며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총 1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약 0.135캐럿)를 세팅한 골드 핀 바늘 장식의 엘리베이터 스트랩과 함께 제공한다. **트래디션 레트로그레이드 세컨즈 핸드 7097** 특유의 설계를 바탕으로 연탄 그레이 합금 코팅한 무브먼트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다이얼 면으로 노출해 기어 트레인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10시 방향에 위치한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의 세컨즈 핸드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원형 브러싱 처리한 반원 모터브에 블루 스틸 핸즈를 더해 해당 컴플리케이션이 더욱 돋보인다. 12시 방향에는 전통적인 엔진 터닝 홈네일 패턴의 실버 골드 다이얼이 자리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다이얼은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179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작한 다수의 액트 위치에서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실리콘 팔렛을 장착한 스트레이트 라인 인버티드 레버 이스케이프먼트, 뛰어난 정확성을 보장하는 실리콘 브레게 오버 코일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505SR로 구동하며 5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한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하우스의 과거 엔틱 워치 스타일을 차용한 골드 와인딩 로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섬세하게 홈이 파인 케이스 밴드를 갖춘 지름 40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 또는 로즈 골드 케이스로 전개한다. **트래디션 인디펜던트 크로노그래프 7077** 양방향의 독립된 기어 트레인을 갖춘 시계로, 크로노그래프 작동에 의한 오차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고자 탄생했다. 오른쪽에 위치한 것은 시와 분을 표시하기 위한 트레인이며(3Hz로 진동), 다른 하나는 크로노그래프 작동 시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5Hz로 진동). 2개의 트레인은 완전하게 분리된 형태이므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작동시켜도 무브먼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크로노그래프는 방수 기능을 지닌 2개의 스크루 타입 푸셔가 관장하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하나의 푸셔는 측정을 시작하는 기능, 다른 하나는 멈추고 리셋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리셋 과정을 통해



3



1 마린 오라undi 5557, 2 마린 담프 9518의 아름다운 다이얼, 3 마린크로노그래프 5527, 4 마린 5517, 5 마린 알람 유지젤 5547.



프랑스 왕정 해군의 크로노미터 메이커

브레게는 해양에 관련된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775년부터 브랜드 창립 초기 20년간 크로노미터 연구 개발에 집중한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해양 시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얻은 높은 명성을 바탕으로 루이 18세의 열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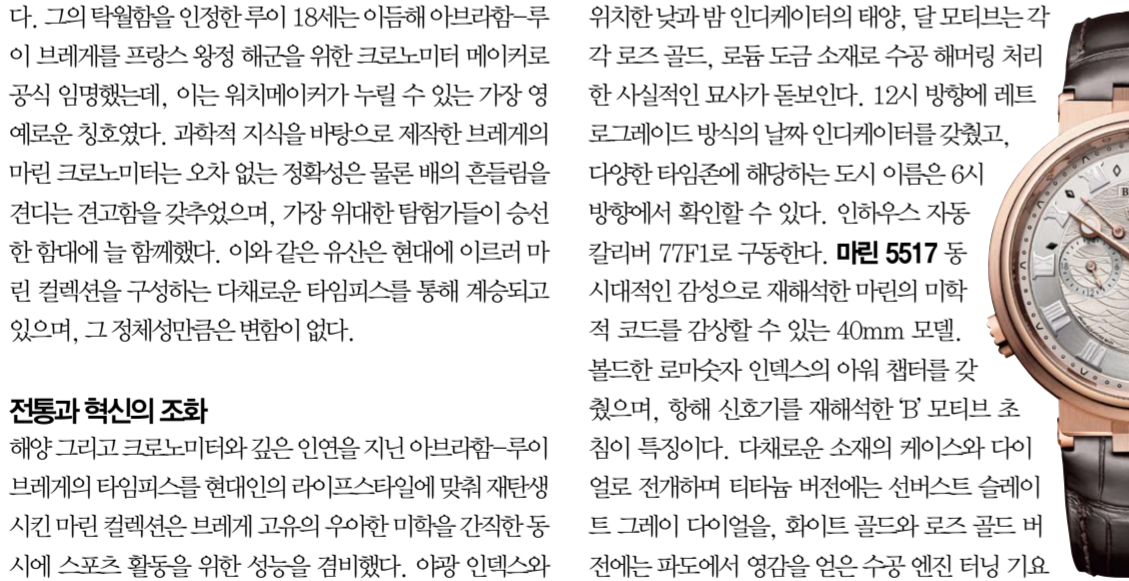
추종을 받은 아브라함-루이 브레게는 1814년 파리 경도국 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었고(경도국은 항해 개선, 표준 시간 관리, 측지, 천문 관측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프랑스 과학 기관으로 19세기에는 전 세계의 시간을 동기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위치메이킹 분야의 대표로서 물리학자와 선원에게 바다에서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노하우를 제공한다. 그의 탁월함을 인정받은 루이 18세는 아담해 아브라함-루이 브레게를 프랑스 왕정 해군을 위한 크로노미터 메이커로 공식 임명했는데, 이는 위치메이커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칭호였다.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작한 브레게의 마린 크로노미터는 오차 없는 정확성은 물론 배의 흔들림을 견디는 견고함을 갖추었으며, 가장 위대한 탐험가들이 승선한 함대에 늘 함께했다. 이와 같은 유산은 현대에 이르러 마린 컬렉션을 구성하는 다채로운 타임피스들 통해 계승되고 있으며, 그 정체성만큼 변함없이 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

해양 그리고 크로노미터와 깊은 인연을 지닌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의 타임피스를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재탄생시킨 마린 컬렉션은 브레게 고유의 우아한 미학을 간직한 동시에 스포츠 활동을 위한 성능을 겸비했다. 야광 인덱스와

렌즈, 스크루 록 크라운, 100~300m 방수 가능 등의 특징은 역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GMT, 투르비용, 군사차 등 다채로운 컴플리케이션을 갖춘 모델로도 전개하며 진정한 시계 애호가들을 만족시키는 브레게 마린 컬렉션의 신제품과 주요 타임피스를 소개한다. **마린 오라undi 5557** 3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컴플리케이션 위치로 4개의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가장 주요한 특징은 단 한번의 클릭으로 즉각적 시간 전환이 가능한 듀얼 타임(GMT) 디스플레이. 착용자가 크라운을 사용해 첫 번째 도시의 시간 및 날짜를 선택한 뒤 두 번째 도시를 설정하면 일체형 자동 장치로 구성된 획기적인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계산한다. 지름 43.9mm의 로즈 골드 또는 화이트 골드 케이스로 출시하며 수공 기요세 기법으로 파도 모티프를 새겨 넣은 선버스트 블루 다이얼에 입체적인 세계지도를 담았다. 4시 방향에 위치한 낮과 밤 인디케이터의 태양, 달 모티프는 각각 로즈 골드, 로듐 도금 소재로 수공 해머링 처리한 사실적인 묘사라 돋보인다. 12시 방향에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의 날짜 인디케이터를 갖췄고, 다양한 타임존에 해당하는 도시 이름은 6시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하우스 자동 칼리버 77F1로 구동한다. **마린 5517** 동시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마린의 미학적 코드를 감상할 수 있는 40mm 모델. 볼드한 로마숫자 인덱스의 아워 챗터를 갖췄으며, 항해 신호기를 재해석한 'B' 모티프 초침이 특징이다. 다채로운 소재의 케이스와 다이얼로 전개하며 티타늄 버전에는 선버스트 슬레이트 그레이 다이얼을,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 버전에는 파도에서 영감을 얻은 수공 엔진 터닝 기

요세 다이얼을 장착했다. 55시간의 파워 리저브 및 100m 방수 기능을 갖춘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777A로 구동한다. **마린 크로노그래프 5527** 지름 42.3mm의 크로노그래프 위치로 3시 방향에 미닛 카운터, 6시 방향에 크로노그래프 위한 아워 카운터, 9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 4시와 5시 방향 사이에 날짜창을 갖췄다. 골드 소재의 선버스트 슬레이트 그레이 다이얼을 장착한 티타늄 모델, 실버드 골드 다이얼을 장착한 로즈 골드 모델, 또는 골드 소재의 블루 다이얼을 장착한 화이트 골드 버전 등으로 전개한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582QA로 구동하며 48시간의 파워 리저브 및 100m 방수가 가능하다. **마린 알람 유지젤 5547** 날짜, 세컨드 타임존, 알람 기능을 갖춘 컴플리케이션 위치,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을 구동하면 컬렉션의 항해 관련 테마를 반영한 배의 종이 12시 방향의 창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알람과 세컨드 타임존 인디케이터는 각각 3시와 9시 방향에 위치한 2개의 서브 다이얼을 통해 표현되며, 9시와 12시 방향 사이에는 스트라이킹 메커니즘 구동을 위한 별도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자리한다. **마린 담프 9518** 여성을 위한 지름 33.8mm 모델로 날짜 인디케이터를 장착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591A로 구동한다. 바다의 영감을 담아 마레아(Marea) 모티프로 기요세 가공한 머더오브펠 다이얼 또는 블루 레커 다이얼을 장착했고, 다이아몬드 베젤이 어우러져 눈부시게 아름답다. 로즈 골드·화이트 골드·스틸 모델로 전개한다. 글 **이비매**(캐럴린 에디터)



Passion for the Marine

프랑스 왕정 해군의 공식 위치메이커라는 유구한 헤리티지를 지닌 마린 컬렉션은 전통을 중시하되 혁신을 거듭하는 브레게의 철학을 오롯이 담고 있다. 여기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포티한 디자인까지 갖추며 하우스를 대표하는 컬렉션으로 자리 잡았다.

Elegant Legacy

한 편의 시에 비유되는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브레게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을 소개한다.



키롤린 뮐라와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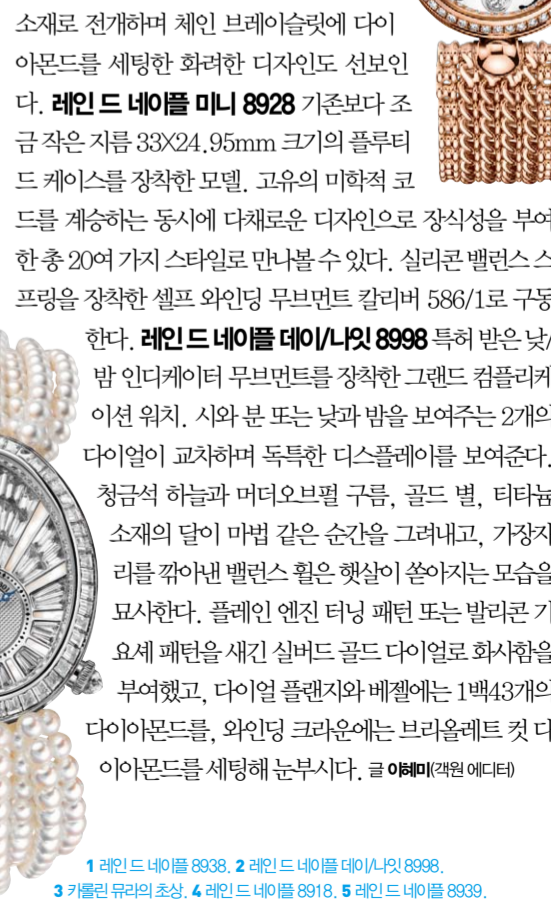
시계 애호가였던 역사적인 여성 위인과 브레게가 맺어온 긴밀한 관계의 시작은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 나폴리의 여왕이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여동생 키롤린 뮐라(Caroline Murat)가 있다. 1808년부터 1815년까지 남편 호아킴 뮐라(Joachim Murat)와 함께 나폴리를 통치한 그녀는 예술을 적극 장려했으며, 무엇보다 브레게가 지닌 미학적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었다. 재위 기간 중 34개 이상의 브레게 시계를 주문했을 만큼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의 가장 충실한 고객이었다. 그녀는 하우스의 특별한 컬렉션이 탄생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회중시계가 통용되던 1810년 당시 키롤린 뮐라의 요청으로 브레게가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를 제작한 것. 기존

타임피스의 개념을 완전히 전복한 이 새로운 시계는 온도계를 장착한 타원형의 엑스트라 슬림 미닛 리피터 위치로, 그 어느 주얼리보다 눈부시게 여왕의 손목을 장식했다. 기록에 남아 있는 스토리에서 영감을 얻은 브레게 하우스는 2002년 나폴리의 여왕이라는 뜻을 지닌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을 제작해 키롤린 여왕에게 헌정한다. 왕실의 기품을 담아 독보적인 매력을 지닌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은 현재까지 많은 여성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여성을 위해 탄생한 걸작

위치메이커 브레게의 선구적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은 기술적 완성도와 미학적 우수성을 모두 갖춘 역사적으로 그랑프리 드 로를로제리(Grand Prix de L'Horlogerie)에서 여성 시계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특유의 우아함을 드러내는 타원형 케이스 위로 공방 장인의 노련한 손길이 더해지고, 화려한 주얼 장식과 감각적인 컬러 배치, 진귀한 소재의 사용으로 완성된 예술적 타임피스는 풍부한 감동성을 만족시킨다. 손목 위에서 다채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의 주요 모델을 소개한다. **레인드 네이플 8938** 다이얼 위 총 3백84개의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해 눈부시게 빛나는 주얼리 위치. 타원형 케이스의 베젤과 다이얼 플랜지, 러그, 크라운 또한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극도로 화려하다. 6시 방향에 위치한 화이트 머더오브펠 소재의 오프센터 아워 챗터로 시간을 읽을 수 있고, 전통적인 브레게 뉴머럴 인덱스와 함께 문 팁 핸즈가 어우러져 우아하다. 블루 엘레게이터 스트랩을 장착한 화이트 골드 모델 또는 오펜지 엘레게이터 스트랩을 장착한 로즈 골드 모델로 만날 수 있다. 45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셀프 와인딩 칼리버 537/3으로 구동한다. **레인드 네이플 8918**

에그 세이프의 머더오브펠 다이얼, 예술적 감각을 담은 브레게 아라비아 인덱스, 볼러그 등 기존 모델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인 모티프의 골드 브레이슬릿을 더해 장식적 측면을 강조했다. 다이아몬드 베젤, 브리올레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크라운, 다이얼 6시 방향의 페어 컷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져 광채를 발산한다. 로즈 골드 또는 화이트 골드 소재로 전개하며 체인 브레이슬릿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려한 디자인도 선보인다. **레인드 네이플 미니 8928** 기존보다 조금 작은 지름 33X24.95mm 크기의 플루티드 케이스를 장착한 모델. 고유의 미학적 코드를 계승하는 동시에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장식성을 부여한 총 20여 가지 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다.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586/1로 구동한다. **레인드 네이플 데이/나잇 8998** 특허 받은 낮/밤 인디케이터 무브먼트를 장착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위치. 시와 분 또는 낮과 밤을 보여주는 2개의 다이얼이 교차하며 독특한 디스플레이를 보여준다. 청금석 하늘과 머더오브펠 구름, 골드 별, 티타늄 소재의 달이 마법 같은 순간을 그려내고, 가장자리를 깎아낸 밸런스 휠은 햇살이 쏟아지는 모습을 묘사한다. 플레인 엔진 터닝 패턴 또는 발리쿰 기요세 패턴을 새긴 실버드 골드 다이얼로 화려함을 부여했고, 다이얼 플랜지와 베젤에는 1백43개의 다이아몬드를, 와인딩 크라운에는 브리올레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눈부시다. 글 **이비매**(캐럴린 에디터)



1 레인드 네이플 8938, 2 레인드 네이플 데이/나잇 8998, 3 키롤린 뮐라의 초상, 4 레인드 네이플 8918, 5 레인드 네이플 8939.



1 프리즈 서울 2022를 통해 선보인 브레게 라운지 전경. 2 기묘세 기술 시연 중인 브레게 매뉴팩처 소속 장인. 3 브레게 라운지를 통해 선보인 여성 워치 신제품 글락시담므 8068. 4 (왼쪽부터) 올레 사뮈엘 선보인 루리비움 트래디션 7047과 아예 영감을 준 전설적인 서브스크립션 워치.


1775년 창립된 이후 꾸준히 예술계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 온 스위스의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브레게. 이들이 지난 5월 세계 3대 아트 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2024년까지 프리즈의 다섯 가지 국제 행사(프리즈 런던, 프리즈 마스터, 프리즈 뉴욕, 프리즈 로스앤젤레스, 프리즈 서울)를 통해 협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브레게는 창립자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의 전위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워치메이킹 세계의 최전선에서 끊임없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뛰어난 과학자이자 기술자이며 디자이너인 그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창조자로 여겨집니다. 브레게는 명성 높은 현대 아트 페어인 프리즈의 파트너로서 현재와 미래의 재능 있는 예술가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성명문 일부 발췌).” 이에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뉴욕 맨해튼에서 첫 번째 공동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서울에서도 특별한 자리를 선보였다. 9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프리즈 서울 2022를 통해 하우스의 헤리티지를 듬뿍 느낄 수 있는 브레게 라운지를 운영한 것. 전 세계 21개국, 1백1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해 전시한 가운데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메이커로서 유일하게 함께한 브레게 라운지는 쾌적한 단독 부스를 통해 메종의 고객은 물론 아트 컬렉터와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매년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의 비

전을 담은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예술가에게 자율 재량권(Carte Blanche)을 제공하는 브레게는 이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아티스트 파블로 브론스타인(Pablo Bronstein)과 협업했다. 그 결과물인 대규모 월페이퍼 작품을 배경으로 한 라운지에서 방문객들은 브레게의 아이코닉 타임피스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었다. 1796년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고안한 전설적인 서브스크립션 워치와 이를 모티브로 탄생한 트래디션 컬렉션, 그 밖에 클래식과 레인 드 네이플, 마린 컬렉션의 대표 모델을 소개했고, 주요 신제품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부스 한편에서는 이번 이벤트를 위해 내한한 브레게 매뉴팩처 소속 장인의 기묘세 기술 시연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하우스가 보유한 독보적 기술 중 하나인 기묘세 공법은 1786년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워치메이킹에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다이얼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할 뿐 아니라 먼지를 잡아내 시계의 가동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측면도 지녔다.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 방식을 요하는 기묘세 공법은 오늘날까지도 대체 불가능한, 무려 1백 년이 넘는 기묘세 선반 위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 브레게 라운지에서 실제 모습과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또 고객이 이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까지 마련해 브레게의 미학과 역사, 기술력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글 **이재미**(객원 에디터)

BREGUET X PRIZZ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명가 브레게가 세계적인 아트 페어 프리즈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를 기념하며 지난 9월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프리즈 서울 2022에 브레게 라운지가 펼쳐졌다. 파인 워치메이킹의 예술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Breguet
Depuis 1775



레인 드 네이플 8918

BREGUET.COM